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KOREA PUBLIC ARCHITECTURE AWARDS



국토교통부

24



C O N T E N T S

○ 국토부 발간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병민 과장 _ 004

○ 심사평 _ 006

당진 수다박스 2호점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 김준성 소장 _ 008

원주 아트갤러리 유타건축 김창균 소장 _ 009

여주 청소년 휴카페 머뭍 중앙대학교 윤승현 교수 _ 010

춘천 봄내 극장 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이규상 소장 _ 011

○ 공공건축 _ 013

당진 수다박스 2호점 _ 014

원주 아트갤러리 _ 036

여주 청소년 휴카페 머뭍 _ 050

춘천 봄내 극장 _ 066

○ 혁신행정 _ 084

○ 국민참여 _ 098

○ 아카이브 _ 103

2024 공공건축 발간사

공공건축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국민을 이롭게 합니다. 국민들께서 무료로 이용하고, 머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공공건축은 아파트와 상가로 둘러싸여 자칫 삭막할 수 있는 공간에 다양성과 여백을 줍니다. 공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개인화되고 단절된 현대사회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커지는 중요성과 함께 공공건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는 ‘공적 공간’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고, 공공건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을 모십니다. 문화시설 역할도 하는 공공 도서관이 동네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아름답고, 다양하게 합니다. 바쁜 일상처럼 그저 지나만 가는 공간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그 자체가 ‘예술작품’입니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두고, 공공건축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이 멍니다. 공공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건축가가 자율과 창의를 맘껏 실현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지점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7년부터 시작해 올해 18번째를 맞는 이 상은 공공건축의 가치를 조명하며, 공공건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당진 수다박스 2호점’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공공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학부모가 교류하는 공동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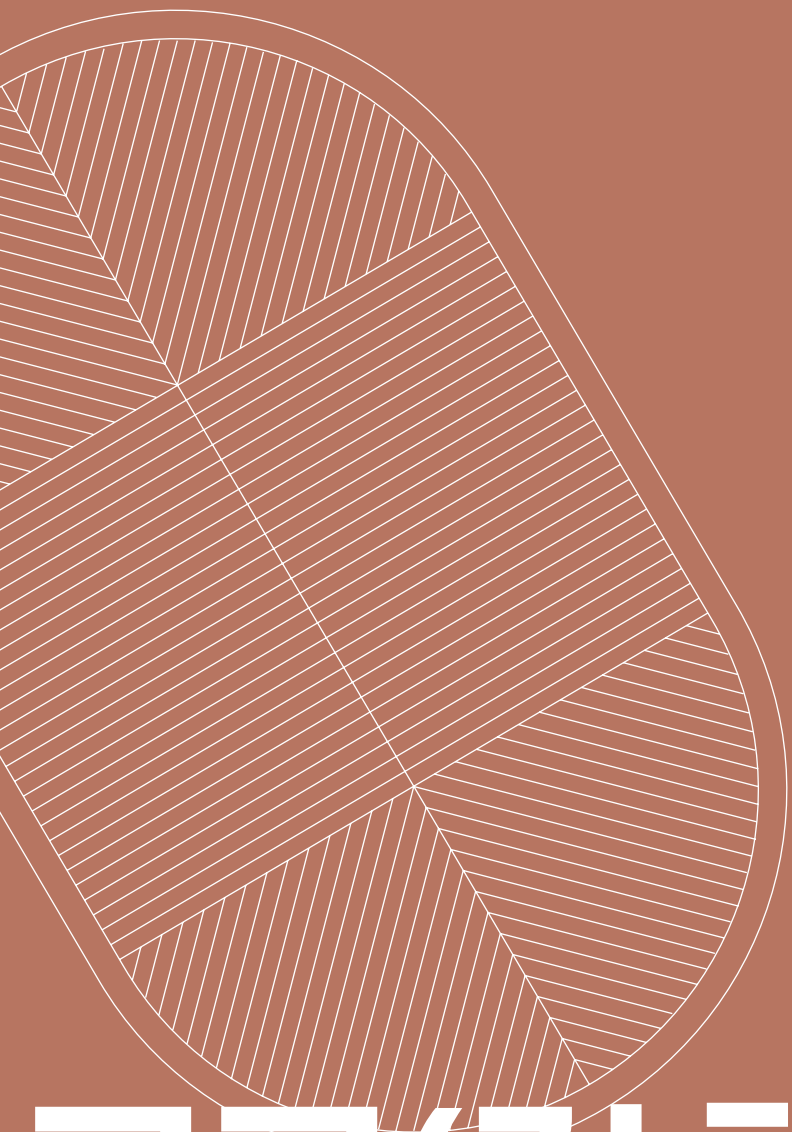
터전이자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멸·쇠퇴, 공동체 상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원주아트갤러리’는 공원의 연장선처럼 느낄 정도의 자연에 녹아드는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은 개발의 압력 속에서 지워지기 쉬운 건축자산을 보전함과 동시에 ‘복합 문화예술공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만난 것입니다. ‘여주 청소년 휴카페 머뭇’은 주 사용자인 청소년의 수요를 숙고하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디자인적 가치와 기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공공건축 행정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단계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공건축제도 사용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공공건축을 만들어 주신 지역주민, 공공건축가, 업계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수상하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공공건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간의 노력을 담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 대한민국 공공건축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건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을 위한 여정에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건축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병민 과장



○ 당진 수다벽스2호점
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
김준성 소장

○ 원주 아트갤러리
유태건축
김창균 소장

○ 여주 청소년 휴카페 머뭇
중앙대학교
윤승현 교수

○ 춘천 봄내극장
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이규상 소장

공공(건축)에 대한 기대

2024 공공건축상 공공건축 분야의 심사는 현장 심사를 거쳐 7개의 작품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일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상 대상작은 4작품으로 좁혀졌고,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당진 수다박스 2호점(당진 2동 학생 활동 커뮤니티 거점센터)'이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에는 건축디자인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공공건축에 대한 이해로부터 완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적극성과 지속성 또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상 당선작인 '당진 수다박스 2호점'은 발주처의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다른 기관과는 큰 차별성을 나타냈습니다. 청소년 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이어 왔으며,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교육 및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도 높은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 낸 점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의 건립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가의 현명하고 창의적 제안이 돋보이는 디자인의 우수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들이 일상과 자연을 가깝게 느끼는 '산책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원주시에 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다른 사업처럼 가격 입찰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시 공공건축가로부터 수차례 자문받고 설계자 선정부터 마무리까지 발주기관, 설계자, 시공사가 함께 노력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최초 기획부터 시와 설계자, 공공건축가가 함께하면서 공원의 환경과 시민 동선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무엇보다 미술관 자체가 주목받기보다 공원의 연장선상에서 산책로 같은 소박한 미술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겸손하지만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외부 공간을 갖춘 아름다운 미술관은 어울리는 작은 공중화장실을 함께 배치하여 먼저 시민을 위하는 공공건축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난도가 높은 디자인이지만 시공과정에서 시공사와 충분히 교감하고 좋은 품질로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안에서 최초의 설계 의도와 부합하게 완성한 것은 발주처와 설계자, 시공사의 노력과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시와 운영 주체가 함께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공공건축물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향후 원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소규모 공공 문화 프로젝트들이 많아져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연속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작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는 공공건축물의 힘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공공건축, 공공공간 조성에는 많은 사람의 고민과 노고가 수반되고 국가의 세금이 바탕이 되므로 허튼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책임을 진 행정 기관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에 대해 질책은 빈번하나 칭찬은 인색하다 보니 공간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고민을 수용하지 못한 채, 검증된 과거의 전례를 찾아 형식을 맞추고, 제도와 기존의 시스템에 의지한 채 실행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주시는 주민 거버넌스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학교 외의 청소년 활동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청소년 카페'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나아가 도시적 관점에서 구도심의 활성화와 유흥시설 재생의 기회로 확장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숨어서 쉬는 작은 공간, 매달리거나 오르내리는 장치, 현란한 색과 기하 없이 담담하고 의연한 장면과 성숙한 공간 정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청소년다움' 혹은 '청소년에게 어울리는 성질'을 일반화하여 공간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인 청소년의 성향과 갈증에 관한 진지한 탐구로부터 시설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진취적인 행정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일상적 발주 형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마당이 될 이곳의 공간적 완성도를 책임질 건축가를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건축가로서의 직능적 역할을 설계과정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내내 충분히 발휘해 낸 건축가, 그리고 사업의 취지와 사용자의 대상이 누구일지를 가늠하고, 적극적으로 공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건설회사 등 모든 관계인이 한 몸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공간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고가 덧대어지고, 많은 고민이 한데 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노력이 모여 동력을 발휘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며 '여주 청소년 휴카페 머뭇'은 행정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발휘한 결실입니다.



심사를 맡고 공공건축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에서 발주하고 지어지는 모든 건물에 공공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상 역시 단순히 건물의 디자인이 우수한 것을 선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구성원들의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이를 공공건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도시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괴리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오랜 기억을 담은 장소들이 쉽게 사라지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활기를 잃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장소들은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 경험의 연속성을 훼손하므로 이에 따라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공공의 개입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춘천 봄내극장' 프로젝트는 춘천 구도심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인 조형으로 수많은 사람의 기억에 각인된 기존 건물군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경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익숙한 골목길 같은 진입로를 지나 로비를 거쳐, 섬세하게 재생된 창틀 하나하나를 느끼며 상부에 새롭게 조성된 소극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공동체에 남아 있던 원형적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기획된 소극장은 지역의 자생적인 여러 단체에 의해 활발하게 이용될 만한 공간으로 미래의 지역성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상징성은 크지만, 구조적인 노후화 등으로 건물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춘천 봄내극장'은 지자체의 선택과 면밀한 디자인을 조율한 건축가가 만나 이루어 낸 결과로, 문화도시 춘천의 기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프로젝트입니다.



○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지역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등의 노력과 성과를
공모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고르게 평가한다.

공공건축



INFORMATION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30(채운동)

주요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대지면적

1,178m²

건축면적

485.54m²

연면적

485.54m²

건폐율·용적율

41.22%

구조

철골, 중목구조

발주

당진시

설계

건축사무사무소 세종(정효경)

(주)지역도시건축사무소 리플래폼(윤여갑)

시공

(주)천지건설(구재문)

공통 질문)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통해 남겨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물은 소수 몇 명의 만족을 위한 사유건축물이 아닌 연령, 성별이 각기 다른 다양한 입장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고,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을 사용하게 될 주요 대상이 되는 시민들과 구상 단계에서부터 인터뷰와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정말 필요한 세부 시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주기관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시민)와 설계자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노력으로 지어진 공공건축물은 사용자가 찾고 싶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1 당진청소년카페 '수다벅스' 2호점(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은 당진시 원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청소년 시설을 계획하게 된 주요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면서 대상지 주변으로 5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하여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청소년의 놀이터 같은 공공건축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길 중간에 쉽게 들를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시설로 내부를 채운다면 청소년들로 붐비는 즐거운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 도시재생과 청소년 공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어떤 컨셉으로 연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는 많은데 학교 근처에 청소년 시설은 없으니, 청소년들이 등하교하는 길목에 아이들의 놀이터 공간을 배치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도시의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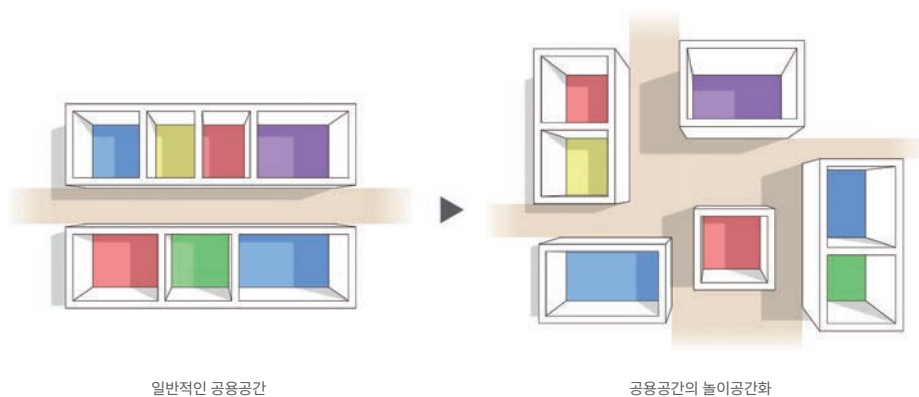


시설을 배치할 때는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허물고 나면 대상지 주변으로 담의 흔적과 기존 건물들의 담벼락이 공간의 경계가 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면서 주변 땅을 모두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동네와 청소년 공간 사이에 다양한 테마 공간을 계획하여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하였습니다.

3

원도심에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는 데 있어, 건축가에게 요구한 큰 방향성이 무엇이었나요?

청소년들이 주 고객층인 건축물이므로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지친 청소년이 쉽터이자 놀이공간으로 편하게 찾고 싶은 참새 방앗간처럼 쉽게 들르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를 요청했으며, 청소년이 좋아하는 시설은 유행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추후 공간 변경이 쉬운 구조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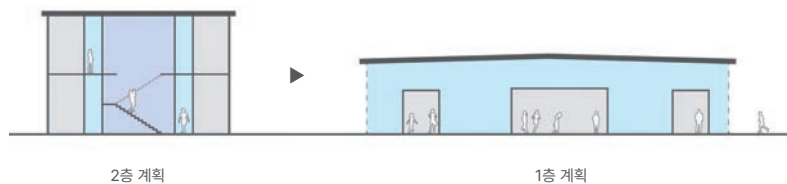


4

건물의 전체적인 공간 구성 철학과 특징, 주요 공간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 내가 청소년이었을 때 어떤 공간을 좋아했을까?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길, 쉬는 시간에 한없이 시끌벅적한 복도에서처럼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정의 내린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불확정적인 공간)을 더 좋아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좋아합니다.

공용부분의 면적을 골목길로 활용하여 프로그램 매스 사이 공간을 서로 다른 크기의 골목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카페, 메이커 스페이스, 댄스 연습실, 노래방, 동아리방이 있는데, 이 실들은 아이들이 원해서 어른들이 정의한 실입니다. 마을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집들인 셈이죠. 집(세부시설)들 사이에 골목이 있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친구와 수다 떨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의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5 2층 규모의 건축물 계획을 1개 층으로 변경하면서 어떤 설계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나요?

계단실, 이동을 위한 복도 공간은 층이 사라지면서 수평적으로 확장되었고, 그 안에 프로그램 매스와 복도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경계 없는 시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접근성과 개방감을 더해 한층 편안한 느낌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6 담장이 건물을 감싸면서도 개방감을 주는 인상입니다. 외부 공간과 건물 사이 공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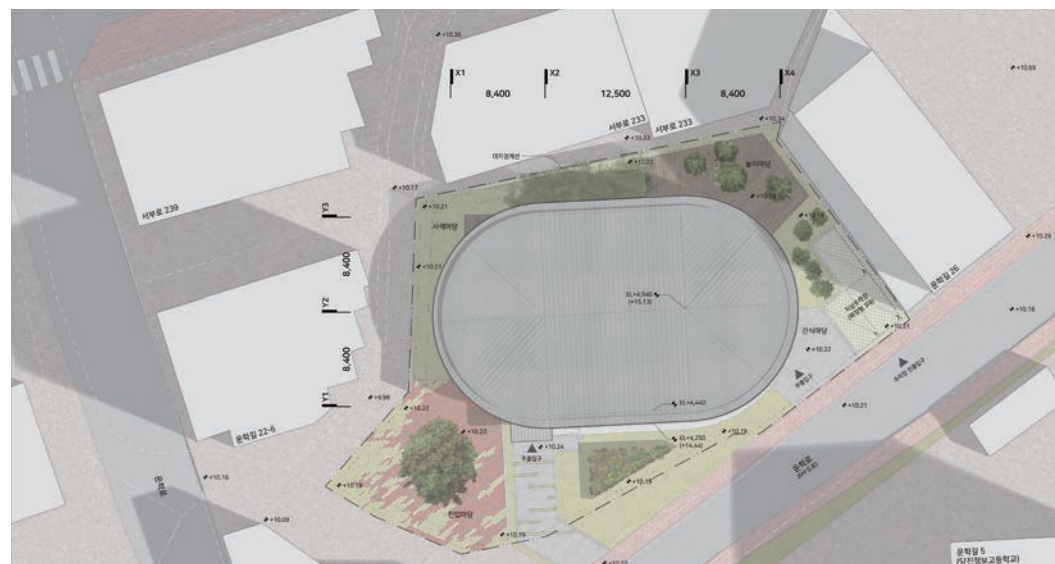
기존 건축물과 담장을 헐어내면서 주변 건물과의 사이 공간이 단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건물의 담장과 벽을 경계로 비어 있는 공간 모두를 활용하면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 외부공간을 건물 내부와 함께 쓸 수 있다면 도시재생, 외부공간의 활용, 내·외부공간의 연결이 가능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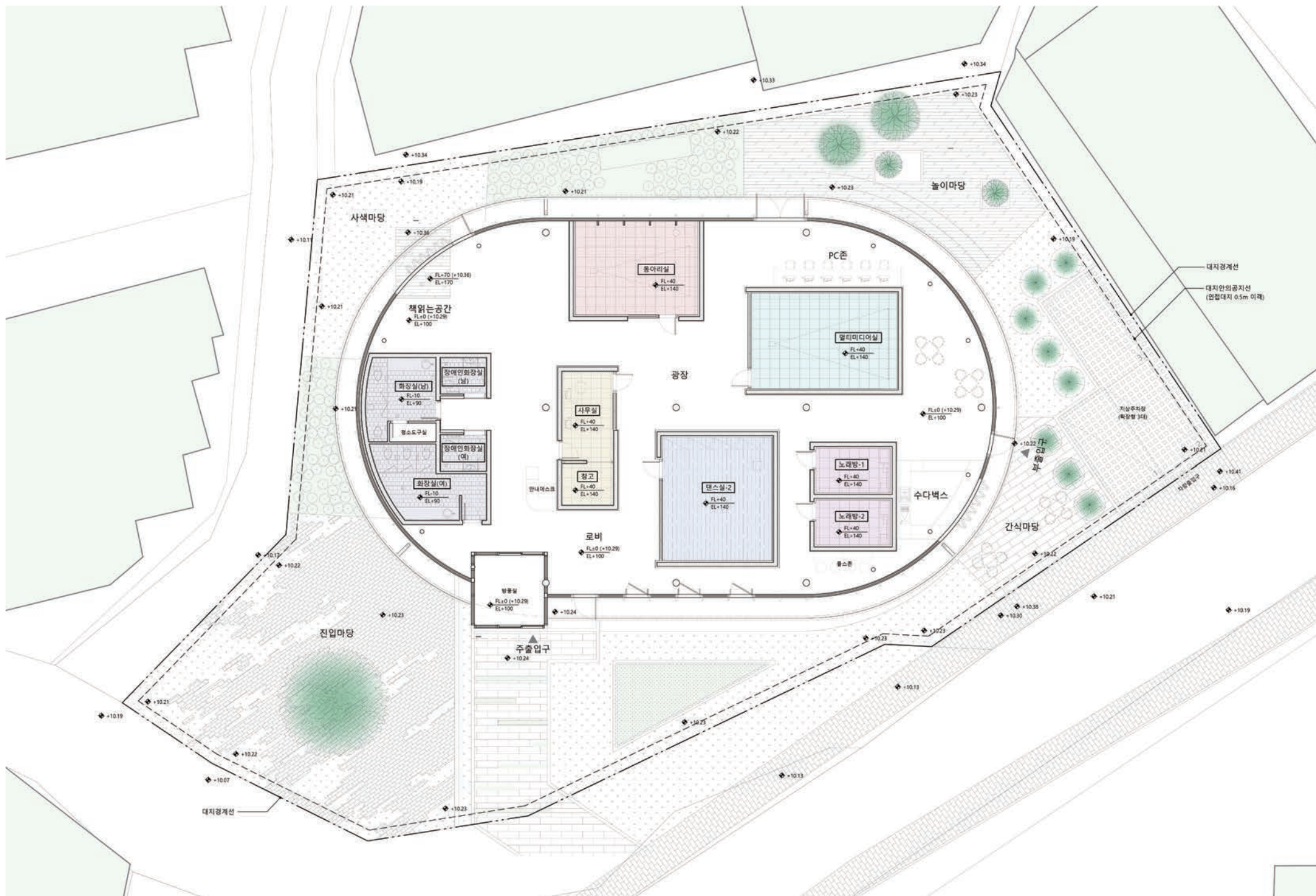
타원형 매스를 다양하게 배치하면서 배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색마당, 놀이마당, 간식마당, 진입마당 등 담장 없이 열려 있는 개별적 테마공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식재형 담장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뒤뜰로 나가는 창호를 폴딩도어로 계획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조경대로 시공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되면 미완성된 부분을 계획했던 대로 완성해 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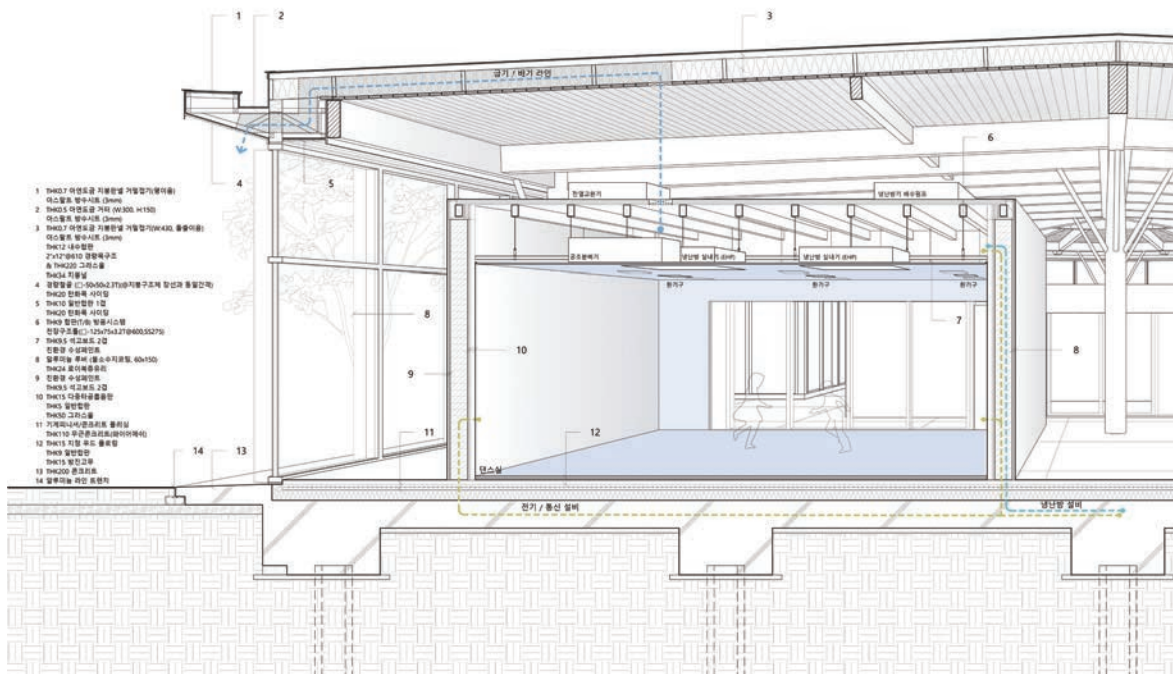
7 프로그램 박스와 골목길, 마당 사이의 경계가 참 재미있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설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박스와 골목길, 골목길과 테마가 있는 네 개의 마당, 마당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동네 사이에는 모두 경계가 존재하나, 이 경계를 자유롭게 열고 닫고 때로는 모호하게 만들어 공간의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도였습니다. 풍성한 도시는 넘나들기 좋은 경계를 가진 건물이 많은 도시일 것입니다. 골목마다 마주하는 매스의 마감재를 모두 다르게 계획했습니다. 매스에서 복도로 열린 창과 문은 다른 매스의 창과 문과 마주 보지 않게 계획해 골목길과 프로그램 매스의 내부가 공간적인 연결과 프라이버시의 확보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매스에서 복도(골목길)로 경계 없이 연장하고, 매스와 골목길은 한국의 여느 마을처럼 막힘 없는 골목길로 연결되고, 골목길은 도시재생의 주변 건물 담벼락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테마가 있는 외부공간과 연결되고, 계속 경계 없이 연결되어 아이들의 교실까지, 청소년들의 학원까지 연결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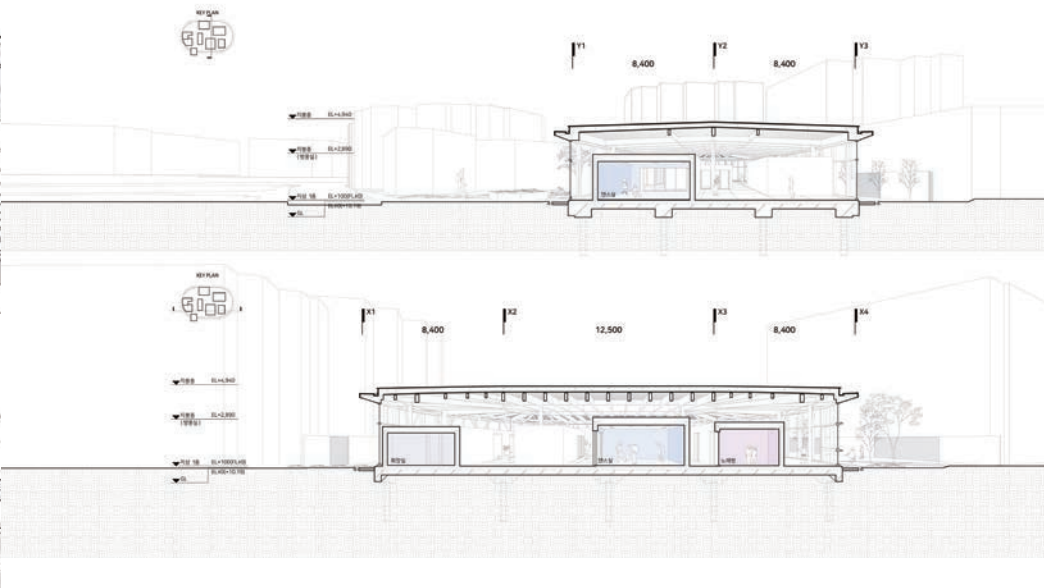


8

개별 프로그램 매스를 하나의 지붕 아래 배치한 설계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공사 중에 운영 주체가 결정되고 레이아웃 변경이 있었습니다. 미팅하면서 시원하게 “고쳐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가변적인 공간에 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곳도 언젠가는 주 이용자가 청소년에서 다른 그룹으로 바뀔 텐데,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건물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시설이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청소년을 위해 나중에 필요시 언제든 변경이 쉬운 공간이 되도록 가변성 있는 박스로 설계하였고, 청소년의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9

프로그램 박스들마다 마감재료가 다르고,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각각 마을의 개별적인 집들입니다. 마감재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골목(복도)에서 놀면서, 놀고 있는 공간이 모두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비슷한 곳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다른 공간, 마을이 되는 계획적인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티가 잘 나지는 않지만 매스들의 높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유행에 민감하며 다양한 요구를 가진 청소년의 특성과 은유적으로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여, 마을의 집을 콘셉트로 설계했습니다.

10

공간과 공간 사이가 마치 학교 복도 같습니다. 이런 구성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뛰어놀던 학교 복도처럼 매스와 복도가 경계가 없이 즐거운 놀이공간이 되도록 폭이 전부 다른 골목길로 계획하였습니다.

11

건축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당진시 관계자, 청소년들과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진시에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다양하게 수행해 온 '당진시 청소년 재단'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왔습니다. 그 회의에는 '당진시 청소년 운영위원회' 소속의 청소년들도 함께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었고, 그 결과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한 달에 한 번씩 공공건축가 정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기획, 설계, 시공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건축계획을 발전시켰습니다.

12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계를 다듬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공식적인 시간이 1년이고, 시공 단계의 수정과 건물 시스템의 설계 발전 업무(실시설계와 시공상세 사이의 업무)까지 포함하면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우선 그 과정에서 보통의 공공건축물과 달리 건물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모두 힘을 모아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계자의 욕심도 있고, 태생이 당진에서 시도해 보지 못한 건물이라는 점에 서 이미 1년의 설계와 또 1년의 시스템 협의는 예측된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시도에 다들 한 말썽씩 하셨습니다.

작은 건물에서 중규모 체육관 규모의 천장이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중목구조의 디자인 퀄리티와 시공 퀄리티의 확보를 위한 스터디가 어려웠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처음 중목구조를 다루는 조심스러움과 시공 퀄리티의 확보가 어렵다는 주변의 조언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13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준공된 건축물의 방수와 누수 문제로 시달리는 시청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 물과 관련된 시공상세에서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또, 목구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롯이 드러나 보여지는 방법을 설계 착수에 서부터 시공과정 내내 고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기, 통신, 기계 감독관님이 공공건축팀에 함께 계시면서 이점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공사가 경험이 많은 업체가 아니었던 점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14

지붕에 콘크리트 대신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모델과 CG에서처럼 말끔한 천장을 만들어 보려고 S자로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데, 목구조에 대한 산림청 지원사업에 이 프로젝트로 지원해 보자는 데 여러 관계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서 목구조로 변경하게 되었고, 설계를 다시 하고 협력사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15

중목구조의 지붕을 선택하신 이유와,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셨나요?

목구조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설계에 대한 초보적인 태도와 욕심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가지는 텍스처를 그대로 잘 살려서 전체 공간의 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고 그 결과 공공건축물에서 시도해 보기 어려운 공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가 가지는 감성적인 느낌을 너무 좋아합니다.

16

목구조와 외부 패널 마감의 이질적인 재료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중목구조를 다루는 평면 라인을 벗어나 경량철골의 처마와 징크 마감재(지붕)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덮고 있는 지붕과 처마는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목재의 거동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붕 내부에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거대한 거터(물받이, 홈통)가 숨어 있고, 그 거터에 바로 연결된 선 홈통은 외부창호의 수직바 바깥쪽에 같은 라인,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트렌치 수로를 건물 주변 테두리 전체에 설치해서 고질적인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했습니다. 올해 여름 폭우에 당진 정보교 마당이 모두 잠기고, 수다벽스 앞마당 2/3 지점까지 폭우에 잠겼지만, 다행히 무탈했습니다.



17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공공 프로젝트는 예산이 늘 부족합니다. 조달청 공사비 정보 광장의 데이터는 절약하고 절약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결과를 입찰한 내용이니까요. 목구조를 고려해서 추가로 약간의 예산을 더 확보했음에도 초기 취합된 공사비가 이미 예산의 30% 정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관계자들과 고민하다 의사 결정자들에게 증액의 필요성을 납득시켜 예산을 증액받자는 의견에 따라 하룻밤 새 모형과 보고 자료를 모두 작성해서 시장님을 뵙고, 마음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선물로 추가 투자를 해야죠.”라고 하시면서 통 크게 부족한 예산의 증액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정일이었는데 그날 추가로 예산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붕과 매스 사이 공간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추가로 주셨습니다. 매스 지붕과 목재 지붕 사이 공간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으니 몇 개라도 아이들의 아지트로 쓸 수 있게 계획하자고 하셨습니다. 예산의 증액보다 더 힘이 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18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 공간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공간을 좋아하는데 특히 카페와 컴퓨터 공간, 노래방이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수다벽스 2호점에 들어오면 1개의 음료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음료를 가지고 컴퓨터를 마음껏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학교 숙제를 하는 대신 자유롭게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즐기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래방에서는 건전하게 친구들과 신나게 노래 부르고 뛰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복도(골목길) 공간에 대한 인터뷰를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프로그램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보다 골목길에 있는 아이들이 늘 더 많습니다.

19

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루리’는 그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운영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연합캠프 활동 등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극동아리, 댄스동아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댄스동아리 ‘얼루어’는 올해 충청남도 청소년 동아리 연합캠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연극동아리 ‘메르헨’은 같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베이킹 동아리 ‘제 과제 빵점’은 베이킹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체험 활동, 베이킹 기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20

하루 2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전국에서 유명한 답사모델이 되었습니다. 수다벽스의 다음 비전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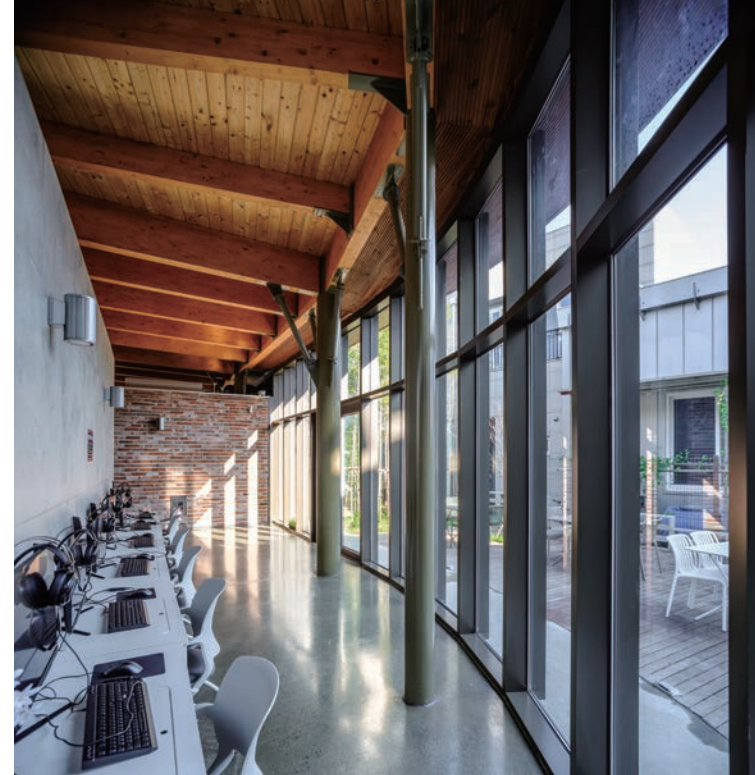
수다벽스가 청소년이 있는 당진의 모든 곳곳에 만들어져 당진시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호점이 시공 중이며, 4, 5호점이 설계구상 단계인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더 많은 수다벽스가 지어져 당진시 청소년을 위한 고유 브랜드로 자리 잡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빛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수다벽스의 3호점, 4호점 등 N호점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당진시의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용자 기준에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디자인이 아무리 아름답고 특이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찾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공공건축물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설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기획해야 하는 업무는 선행 과제입니다. 건립을 위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예측하고, 목표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힘과 융통성,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INFORMATION

위치

원주시 서원대로472-24(단구동)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54,246m²

건축면적

326,17m²

연면적

324,89m²

건폐율·용적율

0.6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발주

원주시청

설계

건축사무사무소 커튼홀(김광수)

시공

무한건설주식회사(이범수)

공통 질문)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통해 남겨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좋은 공공건축이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적 맥락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공건축에서는 건축시설과 더불어 그 건축물이 담고 있는 프로그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잘 짜인 기획과 우수한 건축설계의 지침, 그리고 건물의 준공 이후 이루어지는 충실한 운영과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한 업그레이드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 전문가의 참여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의 완성도와 독창성을 더할 수 있고, 준공 후의 운영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건물의 기능이 조화롭게 더해질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건축의 우수성은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충실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1

**원주시는 2019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갤러리 프로젝트는 어떤 문화적 비전을 담고 있나요?**

원주시는 2019년 지정된 법정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도심 공원에 자연을 기반으로 전시와 힐링을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예술품을 보다 쉽게 감상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편의를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

원주 아트갤러리와 기존 미술관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원주 아트갤러리는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며, 종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존 대규모 미술관들은 대규모 공간에 고정된 컬렉션과 기획전시를 운영하지만, 원주 아트갤러리는 친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규모 미술관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겸손하지만 아름다운 작은 미술관’이라는 콘셉트가 흥미롭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자에게 요청했던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요?**

원주시 공공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아 원주시가 설정한 주요 설계 방향은 “작은 미술관이 갖는 규모의 한계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세심한 디자인으로 극복하고, 공원의 환경과 시민 동선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설계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4

아파트 밀집 지역의 소공원 내에 미술관을 설계하면서, 예술성과 일상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하셨나요?

설계를 시작하기 전 현장 답사를 수차례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우 많은 사람이 이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아트갤러리이지만 일상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산책하는 미술관’이라는 개념을 떠올린 것입니다.

5

**‘산책하는 미술관’으로서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건축적으로 도입한 요소가 있을까요?**

공원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출입구를 다방면으로 계획했습니다. 공원 산책의 동선과 휴식, 관람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 시설을 방문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른 햇빛의 방향과 변화하는 그림자 그리고 실내 동선의 선택에 따른 공간 경험이 다를 수 있도록 벽돌 영롱쌓기를 사용해 여러 갈래로 동선의 다양성을 부여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그 느낌이 아주 다를 것입니다.

6

**전면부 조각마당과 후정의 조각품들을 통해 조각공원과 미술관을
연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두 공간의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이곳은 본래 조각을 주제로 한 미술관입니다. 화이트큐브 공간에서 조각을 360도로 감상하는 일시적 조각 전시의 종래적 성격을 벗어나서, 다수의 조각들을 동선상의 움푹 패인 알코브에 맞게 작품을 커미션 주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즉 공간에 특징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열린 전면부에서는 조각 마당의 조각을 감상하거나 실내 홀에서 쉴 수 있고, 벽돌 영롱쌍기로 이루어진 알코브 통로를 거치며 불쑥 등장하는 알코브의 조각품과 밀착된 경험을 한 후 다시 후정의 조각품 공간으로 통로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중정의 휴먼스케일을 초과하는 대형 조각품을 설치하여 이를 실내에서 발견하는, 다시 말해서 건축과 작품이 일체화되며 경험이 밀착되거나 공간이 열리는 것을 나름 섬세하게 의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록 소규모의 시설이지만 공간 내외부의 관계성과 그 스케일의 변화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건축 및 작품의 고유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7 미술관 완공 후, 공원과 미술관의 시너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건축사의 '산책하는 미술관' 개념이 성공적으로 구현되면서,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공원을 함께 즐기거나,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어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술감상과 자연 속에서의 휴식이라는 두 가지 경험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8 공원 입구에서 시작된 동선이 미술관 내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요, 실제로 산책하는 분들이 미술관을 많이 방문하는지요. 방문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방문객들은 갤러리 주변 공원 및 둘레길과 연계해 여가를 즐길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곡선형 건축과 밝은 색채의 창문, 그리고 편안한 관람 동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소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9 매스 디자인이 말발굽 모양의 산세와 잘 어우러집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특별히 고려하신 점이 있나요?

최대한 산세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물의 배치와 형태 그리고 높이 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매스 자체가 산세에 따라 그 동세를 이루며 산책자의 동선과 어우러지기를 의도했습니다. 사실 지붕에 설계했던 옥상녹화는 공사비 관계로 삭제되었지만 지금 모습으로도 무척 산세에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합니다.



10

곡선형 단면과 3차원 거푸집 도입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콘크리트 벽과 천정의 경계가 없이 일체화되기를 바랐습니다. 알코브의 움푹 패인 아치형 조형감과 연결 통로의 둥굴과 같은 느낌 또한 서로 일관되고, 건축물과 설치되는 조각품이 일체화되어 건축 및 작품이 어우러진 나뭇의 고유성과 살아 있는 듯한 유기체의 성격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철판 거푸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내 마감의 경우 콘크리트 위에 형성되는 표피적 마감의 성격을 강조하여 구조체의 조형과 구법 그리고 실내 마감이 상호 간에 솔직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11

곡면 위주의 노출콘크리트 설계가 갖는 품질 관리 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철판 거푸집을 탈형했을 때는 상당히 마감이 거칠었지만, 이는 예상했던 것으로, 예정된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으로 면을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지금도 벽과 천정이 만나는 3차원 곡면의 코너 부위에 철판 거푸집 조립의 수직 매지 흔적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는 않았었지만 무언가 힘줄 같은 유기체적 느낌을 주기에 시공사에게 보수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나뭇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공사도 장인 정신을 갖고 많은 애를 썼고 법정 감리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분들도 모두 저희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 회의를 해가며 열성적으로 일을 진행했기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

높은 시공비로 인한 예산 낭비 논란도 일었는데, 이 투자가 현재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곡면 위주의 노출콘크리트 건축물 실연을 위해 높은 시공비가 투입되었지만 독창적인 설계와 시각적 아름다움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예술을 느끼게 하며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고취합니다.

13

미술관 내부 동선 설계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셨나요?

아트갤러리는 조각갤러리로 의도한 것으로 사실 공원 내에 있기에 야외조각공원에 더욱 큰 방점을 찍고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부는 카페가 있는 홀과 소형 전시실과 세미나실 정도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홀에서도 야외 조각마당과 중정을 향해 조각을 감상하도록 기획하여 내부에서도 동선이 중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정에서 전시실로 이어지기도 하는 흐름의 구성을 취했습니다.

산책하는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은 외부에서 접근하는 공중화장실로 계획했는데 인접도로에 오수관로가 없었기에 대로에서부터 관로를 신설해야 해서 공사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휴게와 소통의 기능을 갖는 홀 내의 카페가 없어진 것이 무척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산책과 휴식과 작품의 감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의도하여 작품감상의 밀착감과 펼쳐짐을 위한 스케일의 변화와 이를 위한 벽돌 영롱쌓기와 알코브, 중정과 후정 같은 공간 요소들이 관람자 경험의 특별함을 위한 장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내/외부로 확장되는 동선이 인상적입니다.
관람객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자 하셨나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념은 주름과 펼쳐짐입니다.
내부의 주름지고 응축된 경험이 있고 그 동선과 기운이 외부로 펼쳐지는
평면과 매스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각작품들이 조각마당과 공원에
펼쳐지기를 기대했는데 동적인 산책과 정적인 휴게, 관람자와 작품간
관계의 밀착됨과 펼쳐짐. 산세와 동세가 어우러지며 유기체적인 생동감을
관람자들이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15

**시설관리와 전시 운영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원활한 협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설 관리와 전시 운영이 따로 이루어질 경우, 전시 공간의 상태와 전시
기획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2025년부터는 통합관리하여
전시 운영 목적에 맞는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6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전시를 운영해 오셨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전시회는 무엇이었나요?**

가장 성공적인 전시로는 <자연의 시인, 클로드 모네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네전은 실제 작품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레플리카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모네전 이전까지 아트갤러리에서는 소규모 전시만
이루어졌으나, 모네전을 통해 메이저 기획전시도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기회였으며, 총 방문객이 5,500여 명에 달해 원주 시민께
아트갤러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

**원주 아트갤러리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트갤러리는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 작가들에게는 작품활동 및 전시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술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전시장의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개관 전까지
전시 관람문화 확산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8

**현재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미술관이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트갤러리는 도심 속 상설 미술관으로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전시 공간이 없어서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던 분들은
아트갤러리 전시 참여를 통해 다시 작품활동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미술관이 없어서 원정 관람을 하시던 분들은 다양한 작품을 가까이
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트갤러리를 통해 지역
문화활동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미술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트갤러리는 그동안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주 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기획전시 개최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여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트갤러리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전시문화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위치

경기도 여주시 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청소년휴게공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지면적

842.5m²

건축면적

411.88m²

연면적

전체 1587.53m²

지상2층 301.40m², 지상3층 294.53m²

건폐율·용적율

48.75% · 116.59%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발주

여주시청

설계

스튜디오인로코 (강승현/김나운)

시공

주식회사 여강건설 (김진국)

공통 질문)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통해 남겨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역할을 넘어 건축물이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건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공공건축은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지역문화를 반영하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끼며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주시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상업적, 문화적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휴카페'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주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로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2 도농복합도시라는 여주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 시설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었다고요.

여주시는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특성이 있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사회적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여주시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을 주요 사용층으로 생각하고 시작된 건축물인데, ‘청소년다움을 일반화하지 않는’ 접근이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였을까요?

청소년을 한 가지 틀에 맞추어 일반화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 시설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기능을 찾아내고, 건축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공간에서는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고, 또래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으며, 독서 공간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4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설계자는 단순히 건축적 기술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감각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설계접근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였고, 역량 있는 건축가와 연결이 되어 훌륭한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5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요소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요소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율성’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공간 설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6 이러한 접근이 기존 청소년 지원 시설과 어떤 차별화를 만들었나요?

기존의 청소년 지원 시설은 대부분 기능적인 목적이거나 규범적인 틀을 강조했던 반면, ‘휴카페’는 공간의 유연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머뭇시네마, 생일잔치, 간식데이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7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적 도전과제가 동반되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석면 해체 작업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공간의 제약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간을 변형해야 했습니다.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 끝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습니다.

8

‘휴카페’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원칙이나 철학은 무엇인가요?

‘휴카페’의 설계 원칙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을 넘어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또래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공간이 열려 있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9

공간 설계에 있어 ‘민주시민으로서 공공공간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습득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한 건축적 요소가 있을까요?

‘휴카페’에서는 공공공간의 사회적 책임과 민주적인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주요 부분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동 작업 공간과 토론 공간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공 공간을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공간은 다양한 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공공적 공간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

2층의 ‘외향적 성격’과 3층의 ‘보호받고 가려지는’ 특성 사이의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공간의 특성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나요?

2층의 외향적 성격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증시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모임이나 이벤트가 이루어지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반면, 3층은 보호받고 가려지는 특성을 강조하여 청소년 상담, 심리검사, 개별교육 등 집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층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도 정서적 심리적 환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드러내어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접근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감각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셨나요?

청소년들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금속, 유리 등의 다양한 질감은 청소년들에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각기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 창의성과 정서적 성장에 기여합니다.



12

의자와 소파의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카페에 있는 인테리어와 가구들은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카페의 의자와 소파는 단순히 기능적인 요소를 넘어, 청소년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공간에서 흥미롭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자나 소파는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청소년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땀의의자와 같은 비정형적인 디자인은 편안함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미를 더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가구와 인테리어는 공간의 기능적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표현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그들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은 건물로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셨는데, 어떤 시너지가 나고 있나요?

청소년 휴카페와 상담복지센터가 한 건물에 있으면서 상호보완적인 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할 때 심리적 장벽을 느낄 수 있는데 상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자주 상담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상담 후에 휴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감정을 정리하는 등 심리적 완충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표현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어 자율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공간의 자율성과 개방성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존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과 또래 모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5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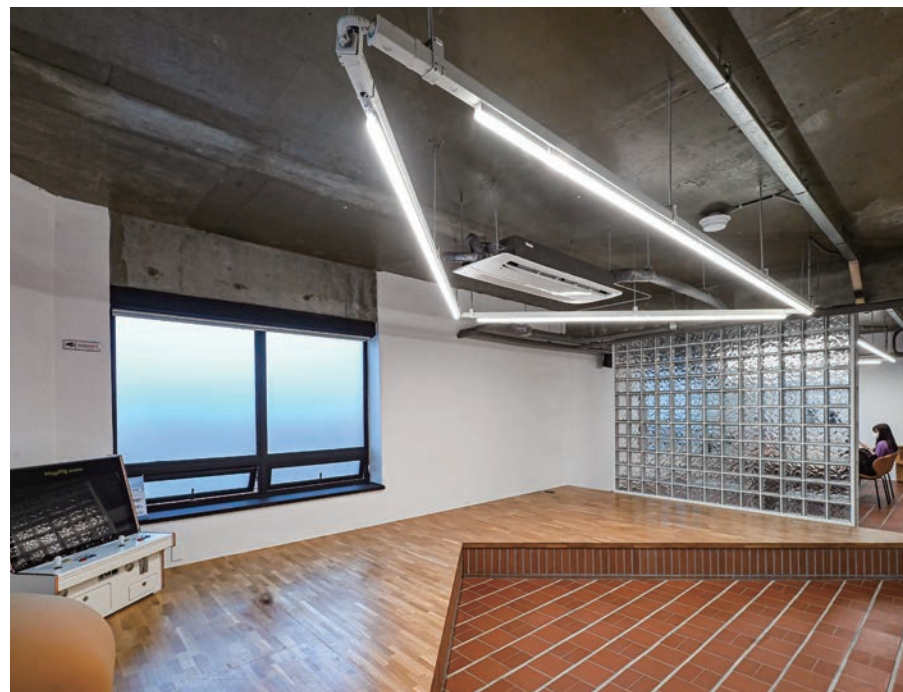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공공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실용성과 지역 사회에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킨 점이 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6

휴카페 명칭을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하여 '머뭇'으로 선정하였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머뭇'은 청소년들이 이 공간에서 잠시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간에 '머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뭇'은 청소년들이 잠시 머물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자, 이곳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7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카페 운영의 핵심적인 참여 주체로, 이들이 카페의 일상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카페의 메뉴 선정, 공간 구성, 다양한 문화 활동이나 이벤트 기획 등에 있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단순히 공간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닌, 주체적인 운영자로서 경험을 쌓고, 리더십과 책임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매달 회의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카페의 분위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며, 실질적인 자율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18

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머뭇'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소년들은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나 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페 운영에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식'이라는 목적 외에도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기에, 이를 반영하여 영화 상영,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생일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카페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더 나아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9

카페 운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원칙이 있는지요?

카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운영 원칙을 지향합니다.

'머뭇'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활동하며,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 원칙으로는 열린 공간, 소통, 자기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20

카페 '머뭇'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하시나요?

'머뭇'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표현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 공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INFORMATION

위치

강원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3,242.00m²

건축면적

306.88m²

연면적

748.82m²

건폐율·용적율

9.45% · 244.41%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발주

춘천시청 · 문화예술과(임진희 주무관)

설계

심플렉스 건축사무소(송상헌/박정환)

시공

(주)청강건설(이인형)

공통 질문)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통해 남겨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에서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축물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건축물의 설계, 예산 관리, 그리고 공공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한 설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은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능성, 효율성, 사회적 통합, 포용성, 미적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공건축은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봄내극장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은 춘천시의 문화 중심지로, 공연과 전시, 예술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소통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20년부터 사단법인 춘천연극제가 위탁·운영하며 연간 150회 이상 공연 등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진 수원연출, 조윤정

2 1970년대에 지어져 47년 역사를 지닌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인데 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나요?

봄내극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역사적 가치와 기능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건물의 독특한 외관을 보존하고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을 보강하면서, 현대적인 공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이곳, 춘천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장소성을 지키는 동시에 현대적인 공연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관객과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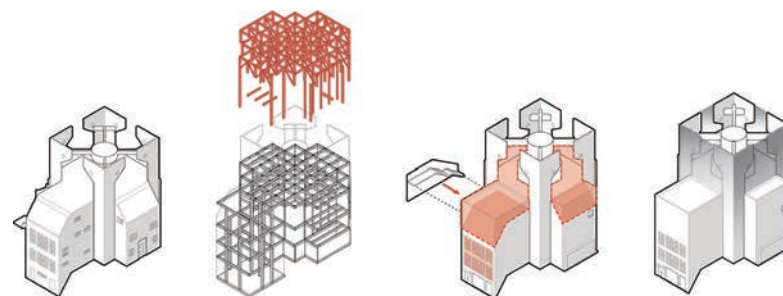


3 역사적 흔적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춘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봄내극장이 위치한 이 장소는 춘천의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 건물의 역사와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4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라는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돈보입니다. 그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건축적 요소가 무엇인가요?

1970년에 지어진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중앙감리교회는 강원도 최초의 예배당 형태를 갖춘 곳으로 춘천 문화 중심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모두 기억하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의 탑 부분과 같은 중요한 건물 형태 요소들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물의 구조 보강을 거쳐 안전 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높이는 노력을 더 했습니다. 또한 건물 외관의 상징적인 벽면 장식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및 보존하여 기존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

**안전진단 D등급 판정 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문제점은 없었나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기존 건물의 기능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예술적 기능을 만족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 건물은 50여 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로 철근은 현재 기준에 비해 부족하고 시멘트 등이 부식하여 생긴 손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과 추가 공사가 필요했고 공사 기간도 1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의 핵심 중 하나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향상하는 과정에서 켓워크와 음향 및 조명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리깅빔을 추가하고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공사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축하면 리모델링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객석 수도 더 늘릴 수 있었겠지만 춘천의 문화 역사적인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실제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예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6

**봄내극장의 아이덴티티인 옥탑 장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봄내극장의 전신인 중앙감리교회 성전은 건축가 김석재 씨가 현대적 건축양식으로 설계한 독특한 건축물로 십자가와 등대 모양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세계성과 한국성을 담고 있습니다. 1969년 발사된 아폴로 11호 우주선과 유사한 조형미를 강조한 초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당시 '아폴로 예배당'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춘천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변형하고자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현대적인 소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전면을 메탈패브릭으로 마감하여 미니멀한 세련미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봄내극장과 주변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들을 연결하는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봄내극장은 강원도청, 춘천시청,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춘천향교와 인접해 있으며, 이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공간의 흐름과 배치에서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외부와의 시각적 연결을 통해 춘천의 다른 문화시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봄내극장과 인접한 기존 교육관은 '춘천미술관'으로, 1977년 지어진 교회학교 '쥬디기념관'은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창작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세 건물은 '춘천예술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중요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춘천의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8

제안공모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안공모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신선한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공공건축 프로젝트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한정된 시각을 넘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건축적 미학뿐만 아니라 기능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공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9

극장 내부 설계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봄내극장은 ‘발견된 공간(found space)’ 개념을 적용하여 생동감 있는 새로운 공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기에 무대 제작과 관람 두 가지 측면에 설계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우선시한 부분은 관객과 공연자 간의 소통이었으며 이를 위해 관객들이 무대와 가까운 거리에서 공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친밀한 공간 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 3층 객석을 2층으로 변경하고, 시야가 가려져 공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좌석의 시야각을 C-Value 90등급으로 확보하여 관객과 공연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으며 장애물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고정 좌석과 이동형 좌석을 조합해 ‘바라보는’ 또는 ‘바라보이는’ 공간 속에서 관객들이 다양한 감정 요소를 주고받을 수 있고 관객들이 편안히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설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0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해지도록 어떤 설계적 요소가 고려되었나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무대 형태에 유연한 공간 배치 조정이 가능한 블랙박스형 공연장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다양한 장르에 맞는 공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형 객석을 도입하여 다양한 객석과 무대 배치가 가능하도록 무대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계단을 신설함으로써 야외 마당을 활용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해졌습니다.

11

블랙박스형 공연장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형 공연장(Black Box Theater)은 유연한 무대 공간을 제공하는 공연장으로, 공연의 형식이나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무대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공간을 말합니다. 블랙박스라는 이름은 공연장의 내부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어 외부 환경과 분리된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블랙박스형 공연장은 벽, 천장, 바닥 등이 모두 검은색으로 마감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배경이 최소화되며 이로써 관객과 무대가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형 공연장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무대의 형태나 관객의 배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공연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무대를 중앙에 두고 360도 관람을 할 수도 있고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를 좁혀 더 친밀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예술을 수용할 수 있어 연극, 댄스, 음악 공연, 실험적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연에 적합하며 창작과 실험을 중시하는 예술가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으로 전통적인 공연장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와 스타일의 공연을 실험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객석 배치를 보면 관객과 공연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껴지고, 소규모 극장에 복합문화공간까지 마련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관객과 공연자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규모 극장에서는 공연자와 관객 간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객석 배치와 무대 구성을 신중하게 조성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은 공연 외에도 다양한 예술적 활동과 문화적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으로 예술과 문화가 융합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봄내극장에서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국악, 무용, 시 낭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비 공간은 관람객 대기 공간, 포럼, 강의, 회의, 연습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 미술가들의 그림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누구나 와서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예술 문화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13

역사적 보존 가치를 지닌 건물이, 예술가와 관람객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 예술가와 관람객에게 주는 효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봄내극장을 찾은 많은 이들이 이 독특한 공간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유럽 관광객은 한국이 새로운 건축만 선호한다고 생각했다가 춘천의 이 역사적인 건물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중앙감리교회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봄내극장을 방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역사적 건물의 보존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간에

대한 애착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예술가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깊이를 더할 수 있고, 관람객들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며 지역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역사적 공간은 예술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그 지역의 삶과 문화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14

리모델링 후 봄내극장의 대관 건수와 관람객 수는 어떻게 변했나요?

리모델링 후 봄내극장은 대관 건수와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이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며 2023년 기준으로 대관 건수는 100건을 넘어섰고, 공연 횟수는 200건에 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10회 이상의 장기 공연을 계획하는 공연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문화적 이벤트가 활성화되면서 봄내극장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5

창작관과 미술관이 봄내극장과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봄내극장은 춘천연극제, 창작관은 춘천예총, 미술관은 춘천미술협회가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세 곳은 '춘천예술마당'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봄내극장 로비에서 다과 회의를 통해 행사 및 춘천예술마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세 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춘천미술협회 아트페어에서 춘천연극제와 춘천예총이 협업하여 공연 후원을 하는 등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즐겁게 작업하고 공연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활성화 하는 것이 이 단체들의 목표로, 창작관과 미술관은 봄내극장과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공연과 전시가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융합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고, 세 공간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시와 공연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16

봄내극장이 춘천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봄내극장은 춘천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극장은 춘천의 역사적 상징성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그 자체로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인 예술적 요구를 잇는 매개체로, 춘천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변모한 봄내극장은 춘천에서 공간 재탄생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힙니다. 2000년대의 봄내극장을 기억하는 이들은 극장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를 쾌적하게 변화시킨 점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관람객과 예술가들의 편의성에 신경을 쓴 설계는 큰 호평을 받으며,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더욱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봄내극장의 변모는 춘천의 공연예술을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공연하고 싶고, 관람객들은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문화도시 춘천을 이끄는 문화 서비스 스테이션 역할을 할 것입니다.

17

봄내극장의 리모델링이 춘천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봄내극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중심이자 춘천 시민들의 문화 예술 활동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춘천연극제에서 매년 진행되는 연극 아카데미에 100여 명이 넘는 시민 수강생들이 수시로 공연장과 로비공간에서 연극 강의를 듣고 배우로, 연출로,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봄내극장에 녹여지고 새겨져서 춘천만의 문화예술이 생겨나고 그 중심에 봄내극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봄내극장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수용하면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춘천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봄내극장은 춘천이 문화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창작과 소통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춘천만의 독특한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지역 사회와 연결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건물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가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이를 보존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주민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감동과 의미를 전달하며,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술가나 문화활동가들에게는 창작의 영감을 주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역사적 건물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물의 보존과 재활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건물의 보존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자긍심과 문화적 필요로움을 선사합니다. 이에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봄내극장은 춘천 시민들의 오랜 자랑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및 품격 향상을 위하여
건축기획업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공모하였다

혁신행정

공통 질문)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통해 남겨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각 기관에서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과 민간건축 모두 공적인 활동입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외관을 보면서 느끼고 소비되므로 그런 면에서 모든 건축은 공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직접 건물을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직접 건물을 짓지도 않지요. 하지만 좋은 설계와 품질 높은 시공이 되도록 돕는 일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 남겨야 할 메시지는 편안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안함은 자연스러움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은 화려한 잠깐의 이벤트를 위한 공간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늘 곁에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이유 없이 가고 싶은 공간, 머물면서 더 좋아지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공간, 후대에 남겨 주고 싶은 공간이 공공건축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인위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불편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도 가고 싶은 편안한 공간이 공공건축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이 좋은 공공건축 아닐까요?

1

경상남도 공공건축 행정 시스템의 주안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이나 광역지자체와는 다른 경상남도만의 인구, 도시 등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그것을 공공건축 행정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좀 더 구체화된 사례로는 합천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경상남도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 사업이 주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에서 개별 절차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편리한 도시 공간과 우수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축기획의 각 단계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자칫 행정편의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사전검토 단계에서 주변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개별 사업 담당자 간에 정기회의 또는 TF팀을 유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 단계에서 주요 안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노력으로 설계공모에서 주변과 조화되는 안들이 당선되어 편리한 동선과 조화로운 경관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경상남도에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제도의 주요 특징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로, 기초지자체 18개 시·군이 2021년 모두 공공건축가를 위촉·운영하면서 공공건축가가 없는 시·군의 사업들을 직접 자문했던 업무가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광역지자체로서 시·군의 공공건축가를 활성화하도록 지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관해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고 운영할 때도 공공건축가들이 외부전문가로서 사전검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군 공공건축가에게 자문받은 사업계획을 도에서 일관되게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로서도

공공건축가가 참여한다면 새로운 역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봤고, 실제로 공공건축가들의 주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시·군의 민간전문가 제도 활성화와 함께 도 공공건축가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성과이고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에도 총괄·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장(이지영)으로 3년째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할은 도와 18개 시·군의 건축서비스 산업에 관한 콘트롤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 기획 관련 자문을 연간 200건 이상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건축기본법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요청과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2023년에는 사전검토 관련 문의가 70% 정도 그 외 설계공모, 공공건축심의 등 문의가 30%였고, 2024년에는 사전검토 관련 문의가 50%이고 그 외 질의가 50% 이상으로 건축기획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사업부서 담당자들은 건축 직렬이 아닌 경우가 다수여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문의도 많지만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방향을 잡아가면서 18개 시·군의 건축기획 관련 중추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군에서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의문을 해소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역할들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자문 응답, 관계자 교육, 누리집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전검토가 중심 업무이다 보니 법정 업무이지만 발주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고민을 했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주기 위해 현장 방문과 기관협의회를 진행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투자심사, 자체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등과 유사하다고 느끼며 옥상옥과 같은 행정절차로 느끼지 않도록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발주 부서에게 도움을 주는 의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주부서에서 기관협의회가 끝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건축기획이 이런 역할인지 몰랐는데 많이 배웠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지 방향이 잡혔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뿌듯합니다.

그리고 사전검토 단계에서 시·군 민간전문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마다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모르는 부서에는 민간전문가제도의 설명을 통해 시·군의 공공건축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도 건축주택과 공공건축 기획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전검토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함은 물론 공공건축심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주요 의견을 심의에서 한 번 더 전달함으로써 각 단계별 역할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기획 문화 확립을 위해 발주부서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유의 사항, 사전검토 신청방법, 행정절차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기획 문화 정립에 중요한 역할은 건축사인데, 2022년 건축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모든 건축사로 확대되면서, 경남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확대 교육을 위해 경상남도 건축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4

총괄 건축가와 공공 건축가에게 발주기관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의 외부전문가로서 공공건축가들이 활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부서가 반영하다 보니 다양한 선생님들의 경험이 경남의 개별 사업에 반영되어 매우 실효성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업무는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견을 주어도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사전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공공건축심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센터를 운영하며 직접 업무를 같이하게 됨으로써 공공건축가들과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다양한 건축적 현황 및 의견을 가볍게 나누면서 이를 기반으로 많은 정책 방향과 각종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센터로서는 최고 팬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운영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선생님건축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과정에서 현장간담회와 기관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점을 둔 요소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현장 확인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전검토 진행 건수가 많아질수록 더 확신하게 되었는데 현장 방문은 단순히 대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분위기를 파악하고 때론 주민들이나 건물 운영자들을 만나서 실제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서류에는 없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사업추진과정을 듣게 되기도 하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개선방안을 나누기도 하면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협의회는 발주 부서에게 도움이 되고 사전검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도 공공건축가들은 외부전문가로서 기관협의회에 100% 참석하여 경상남도 정책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검토를 진행합니다.

발주처에는 건축 직렬인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에는 건축의 지식이 없는 담당자도 많기 때문에 대면 회의를 통해 발주부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도움을 주는 사전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고 서면보다 이해도가 높아져 발주처의 만족이 높습니다.

기관협의회를 통해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시·군 민간 전문가가 사업별로 지정되도록 제도를 안내하거나, 경상남도에 수립한 각종 정책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면 회의를 통해 건축기획 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사전검토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합천군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 사례에서 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간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물인 단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개별 사업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예견 주변을 고려한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에서 사업비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등을 진행할 때 부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지자체 소유 부지를 필요에 의해 분할하여 여러 사업이 인접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군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는데 합천읍과 가까운 부지였지만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겨우 주차장을 배치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알아보니 읍내와 가까운 군 소유 부지에 여러 부서가 대지를 쪼개어 사업을 진행했고 담당자는 부지를 너무 적게 할당받았으며 인접 사업 담당부서가 달라 정보공유와 협의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 좋았겠지만 담당부서가 다른 사업들은 개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개별 사업이지만 결국 이용자인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과 통합 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는 주변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므로 외부공간을 같이 쓰도록 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용도에 적합한

외부공간이 조성되는 배치가 계획되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편안하고 조화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사전검토 의견에서만 끝날 경우 실제 통합계획이 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제도를 설명하고 개별 사업에 공공건축가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했고 각 부서들이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담당자별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입장에서 군에 사전검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 담당에게 주변과 연계되도록 사전검토 쟁점을 전달하여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사업별 자료 공유가 중요했는데 설계공모에서 주변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락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최종계획안은 편리한 동선과 조화로운 경관을 가진 계획이 되었습니다.

7 사업부서의 건축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시·군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검토에 민간전문가 자문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발주청과 현장간담회 또는 기관협의회에서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면 시·군 공공건축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전담 부서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2022년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사전검토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각 지자체 공공건축가 자문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더니 자연스럽게 시·군 민간 전문가제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 공공건축가들은 사전검토 외부전문가로서 경남 정책에 적합한 일관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에 시·군 공공건축가와 도 공공건축가가 기획 단계별로 사업계획과 사전검토에 투입됨으로써 전문성이 증진되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단계별 역할을 정립하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군은 건축 직렬 직원이 소수이고, 사업부서는 건축적 전문성이 부족해서 건축행정 공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시·군 발주부서 건축행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활성화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전검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효성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기획단계에서 발주부서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 도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 과정에서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일까?’, ‘이 위치는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까?’, ‘후손에게 물려 주고 싶은 공간인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성적인 질문을 하면서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검토를 하는 저희는 기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획자료를 기초로 검토하되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도민에게 편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검토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중점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9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외부전문가로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하여 기관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는 것은 물론, 사업에 따라 검토 후 회의를 개최하여 발주처에게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참고할 자료를 제시하는 적극적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협의회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내 설계공모 사업은 모두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정책적으로 제시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0 경상남도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공공 건축기획 문화를 조성한 것입니다. 공공건축가가 직접 참여하여 우수한 공간 개선 사례가 많이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군에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에도 큰 영향을 주었고 시·군에서 직접 자문을 시행하여 도 공공건축가의 직접 참여 사업 수는 줄어들었지만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공건축 기획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1 공공건축 만족도 조사에서 92%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비결은 무엇인가요?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건물을 완성하는 첫걸음은 사업부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움의 과정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간담회와 기관협의회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길 듣는데, 다양한 발주 부서의 다양한 직렬 담당자에게 맞춤형 설명과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과정, 각종 절차 및 정보 제공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 기관협의회 필요성이 90% 이상 조사되고 있습니다.

12 합천군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성취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설계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축기획 단계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가 있고 사전검토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획 단계별 역할을 제고하고 상호 작용을 통해 통합계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칫 행정편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별 답을 쌓는 공간이 아닌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조화로운 경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통해 행정업무가 도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13 경상남도 공공건축가를 222명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건축기획의 개념이 법제화되었고 다양한 공공건축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민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운영하였으며, 2021년엔 경상남도 기초지자체 18개 시·군 모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운영하며 우수한 사례들이 만들어진 것이 시·군에게 고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건축기획 문화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였고 시·군 공공건축가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14

경상남도 공공건축 행정 시스템에서 향후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설계공모까지 연계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적 편의와 정보의 일관된 관리·공유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고 이후 단계들을 연계하는 고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단계까지 연계된 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준공 이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단가와 용도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경상남도만의 현실적인 정보를 찾기 힘듭니다. 이런 정보들이 기획 단계부터 제공되고 반영된다면 더 좋은 건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초단기적으로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기획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확보하고, 조직이 독립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행정조직에 있다 보니 직원들의 순환보직, 그리고 총원제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할 수 있는 많으나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인원에 관한 강제성과 예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특별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폐기되어 너무 아쉽고, 필요성이 있으니 민간전문가제도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기대합니다.

써 도민이 원하는 건축물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서 공공건축제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분명 보람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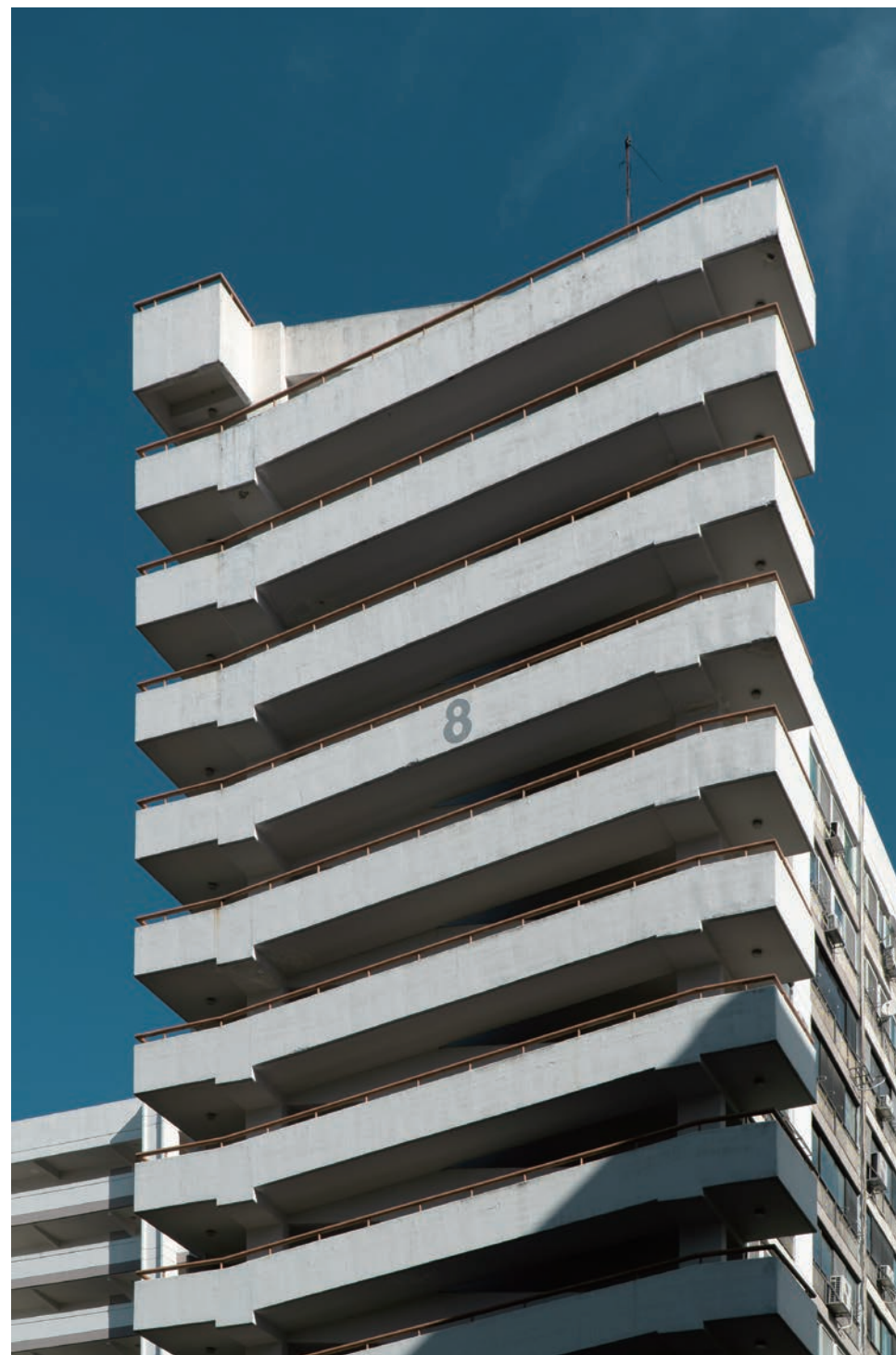
15

앞으로 경상남도 공공건축 정책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결국 이 모든 정책과 노력은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계단참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제도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지속적으로 도민이 원하는 공간을 위해 어떤 정책이 좋을지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

○ 2024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민참여 부문은
○ 일상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공공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공모하였다

국민참여





아카이브





○ 공공건축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당진 수다박스2호점
발주 : 당진시
설계 : 건축사사무소 세종 정효경,
(주)지역도시건축사사무소 리플래폼 윤여갑
시공 : (주)천지건설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원주아트갤러리
발주 : 원주시
설계 : 건축사사무소 커튼홀 김광수
시공 : 무한건설주식회사

우수상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여주 청소년휴카페 머뭇
발주 : 여주시
설계 : 스튜디오인로코 건축사사무소 강승현, 김나운
시공 : 주식회사 여강건설

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춘천봄내극장
발주 : 춘천시
설계 : 심플렉스 건축사사무소 송상헌, 박정환
시공 : 주식회사 청강건설

○ 혁신행정

혁신행정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경상남도

○ 국민참여

대상

한옥도서관(한유진)

우수상

문정시영아파트(김지운)
봉제산책쉼터(인정선)

○ 심사위원

김준성(핸드플러스건축사사무소)
김수영(숨비건축사사무소)
김창균(유타건축)
윤승현(중앙대학교)
이규상(보이드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진효숙(PROJECT CH&F)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24년 12월

발행처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발행인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병민 과장, 권지희 사무관, 한재우 주무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사진제공

당진 수다박스2호점 : 양태영

원주아트갤러리 : 김용관

여주 휴카페 : 여주시청

춘천 봄내극장 : 송유섭

인터뷰 : 주식회사 브이오씨씨

디자인 : 제로스 스튜디오

인쇄 : 영일문화사

ISSN :

